

# 봄철 산불예방 행동요령

##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

-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
  -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
  -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·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
- ※ 산림인접지역 :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



- ▶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▶ 논·밭두렁 등에 대한 불 놓기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허가

##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는 들어가지 마세요.

-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
- ※ 산행에 앞서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·군·구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



##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

-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: 7년 이상의 징역
-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
- 과태료
  -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: 과태료 50만원
  - 화기 또는 인화·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: 과태료 30만원
  -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: 과태료 10만원
  -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: 과태료 30만원



## 논·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

- 논·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
- 영농준비를 위한 논·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중요한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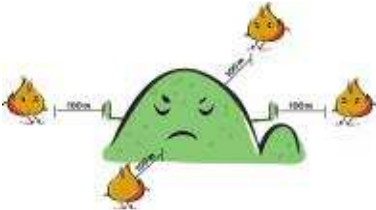


## 논·밭두렁 태우기,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.

- 지난 10년간 논·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48명 사망  
⇒ 원인 :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
※ 사망자의 80%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

##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

-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(100m 이내) 소각행위 금지



-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낮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
-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
-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

-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
-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
-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



##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.

-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
-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신고처 : 광주광역시(공원녹지과) ☎ 062- 613- 4240~ 4243

# 봄철 나들이안전, 황사대처, 산불예방 행동요령

## 즐거운 나들이 안전

[부실한 나들이 준비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]

- 놀이기구 탈 때는 게시된 주의사항 꼭 숙지
- 신장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기구 이용
- 유원시설 이용은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행동
- 해빙기 산행은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
- 유원지에서 각종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
- 바퀴달린 놀이기구 탈 때는 안전장비 갖추기
-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건강관리 유의
- 해외여행 시 재외공관, 응급병원 등 연락처 알아두기
- 여행 목적지의 주의·경고·제한·철폐 등 여행 경보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



## 불청객 황사대처

[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읍시다]

-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 점검
- 외출할 때 마스크는 기본, 매일 세탁 후 사용
- 노약자,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
- 황사에 노출된 채소, 과일 등 충분히 세척 후 섭취
-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외출 할 때 긴소매 옷 착용
-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 유해 물질제거, 살균 효과
- 구석구석 집안 청소

## 건조함 봄철 산불조심

[입산 할 경우 라이타 등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맙시다]

- 취사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
- 논·밭두렁 함부로 태우지 말 것
- 산에서의 흡연은 삼가하고 산불조심 당부
- 산불 발견 시 119, 시군구·읍면동사무소 등에 신고
- 초기의 작은 산불은 잘 타지 않는 물건으로 빨리 끄기
-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불이 약한 곳,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피하기
- 대피장소 : 타버린 지역, 저지대, 탈것이 없는 지역, 바위 뒤, 도로 등 안전한 곳

# 산불안전 행동요령

## 산불에 대비합시다



### 1. 산불이 발생했나요?

- 산불 발견 시 119, 112, 시·군·구청으로 신고합시다.
-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,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시다.
-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풍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납시다.
-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, 저지대, 수풀이 적은 지역, 도로,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합시다.
- 산불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집니다.
-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, 나뭇가지 등 탈것이 적은 곳을 골라 낙엽과 마른풀을 긁어낸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주세요.

### 2.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나요?

- 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는 물을 뿌려주며 가스·기름통, 장작 등을 제거합시다.
-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시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, 밭,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합시다.
-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.
- 가족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예방합시다.

### 3. 산불진화에 참여할 때 이렇게 하세요.

-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(삽, 톱, 갈고리 등)와 안전장구(긴 팔 면직옷, 안전모, 안전화)를 준비합시다.
-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화활동에 참여합시다.

-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안내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합니다.

##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

### 1. 화재로 소실된 축사관리

- 산불로 인해 축사가 전부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,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 합니다.
-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합니다.
-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감전이나, 누전·합선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합니다.

### 2. 화재발생으로 놀란 가축관리

- 빠른 시간 내에 축사 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
-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고 사료는 먹는 양을 봐가며 남기지 않도록 급여합니다.
-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합니다.
-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줘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고,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, 간 기능 강화제, 비타민제, 수액,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.
-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은 잘 보살펴 주도록 합니다.
-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,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말린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합니다.

### 3. 부상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

- 큰 부상을 입은 가축은 신속히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합니다.
-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 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합니다.

- 화재로 죽은 가축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,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켜야 합니다.

#### 4. 방역대책

- 산불지역의 가축은 연기, 화염,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.
-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, 농장별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

#### 5. 사후조치요령

-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해야 합니다.
-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.
-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과종해(겉 뿌림 초지 조성) 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합시다.
-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해서는,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곳은 사료용 옥수수 등 대체 사료작물을 과종해야 합니다.

# 산행 안전 행동요령

## 산에 오를 때는

-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칩시다.
- 하루 8시간 이내 산행하고, 체력의 30%는 비축합시다.
-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합시다.
- 될 수 있으면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지지 맙시다.
-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, 우의, 휴대전화(예비 축전지), 상비약품을 준비하고,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맙시다.
-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것을 신어주세요.
-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, 조금씩 자주 섭취합시다.
-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를 보고 확인합시다.
-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, 아는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를 확인합시다.
-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,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가야 합니다.
-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걸읍시다.
-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걸읍시다.
- 발 디딜 곳을 잘 살펴 천천히 걸읍시다.
- 처음 몇 차례는 15~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, 차츰 30분 정도 걷고 5~10분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규칙적으로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-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더야 합니다.
- 썩은 나뭇가지, 풀,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맙시다.
-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## 산에서 캠핑할 때는

- 야생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, 뱀 등이 나타나면 절대로 공격을 하지 맙시다.
-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,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맙시다.
-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,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칩니다.
-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,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주세요.

## 산행이나 야영 때 집중호우를 만나면

- 휴대용 랜턴, 라디오, 밧줄(로프),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.
- 호우주의보 발령 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기상상태를 주시합니다.
- 기상관측에 잡히지 않는 기습 집중호우에 유의합니다.
- 등산 중일 때에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되, 물살이 거센 계곡은 절대로 건너지 맙시다.
- 야영 중에 물이 밀려들 때에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합니다.
- 하천이나 섬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안전지대로 즉시 대피합니다.
- 집중호우 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(교량)는 건너지 맙시다.



## 농기계 안전관리 행동요령

### ● 농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밝고 깨끗하게 정돈하자



- ▶ 출입구의 폭, 높이는 여유 있게 합시다.
- ▶ 내부는 충분한 밝기와 환기가 되도록 합시다.
- ▶ 농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정리정돈 하여 둡시다.
- ▶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합시다.

### ●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



- ▶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맙시다.
- ▶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 착용합시다.
- ▶ 긴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 넣거나 묶읍시다.
- ▶ 보석류는 빼놓고 작업에 임합시다.

### ● 농작업 전·후에는 반드시 농기계 점검정비를 하자



- ▶ 점검·정비시에는 반드시 엔진이나 전원을 차단합시다.
- ▶ 이상 발견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맙시다.
- ▶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추어 교환합시다.
- ▶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부착하고 떼어내지 맙시다.

● 논·밭 출입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자!



- ▶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합니다.
- ▶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, 후방 작업기가 무거운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합니다.
- ▶ 논독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합니다.

●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!



- ▶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.
- ▶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·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.

●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!



- ▶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하는 사고의 원인임을 명심합니다.
- ▶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.

●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!



- ▶ 방향지시등, 후미등, 비상등,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합니다.
- ▶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는 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합니다.
- ▶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습니다.
- ▶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합니다.

## ● 경운기·관리기



- ▶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끊고 합시다.
- ▶ 회전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맙시다.
- ▶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또는 논·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합니다.
- ▶ 내리막 길에서 조향클러치는 평지와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.
- ▶ 조향클러치는 짧게 여러번 조작하여 선회합니다.

## ● 트랙터



- ▶ 타고 내릴 때는 작업화의 진흙을 제거하고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합니다.
- ▶ 안전 캡 또는 프레임을 장착합니다.
- ▶ 도로 주행시에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합니다.
- ▶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하중이 큰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합니다.

## ● 콤바인



- ▶ 콤바인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적재함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합니다.
- ▶ 막힌 짚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니다.
- ▶ 체인, 양곡기 등에 쌓여 있는 검불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제거합니다.
- ▶ 논독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합니다.

## ● 휴대형 예취기



- ▶ 작업 전에 병,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합니다.
- ▶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.
- ▶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,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▶ 제초날을 톱 대용으로 사용하지 맙시다.

# 유기기구(놀이시설) 이용 안전 행동요령

## 유원기구 이용 안전수칙은

- 유기기구 탑승 전 안전을 위하여 안내방송을 귀 기울여 청취합니다.
- 유기기구 탑승 전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보관실에 보관하고 탑승합니다.
- 유기기구 승·하차 시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릅니다.
- 유기기구 탑승 때 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앉고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착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유기기구 탑승 시 끈이 달린 옷차림이나 목걸이 등은 자칫 놀이기구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않습니다.
- 유기기구별 탑승 가능한 키와 나이 조건에 유의합니다.
-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.
  - 어린이 2명꼴로 최소한 한 명의 보호자(어른)가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.
- 사고의 위험이 많은 청룡열차, 범퍼카, 타가디스코 등의 놀이기구는 안전요원의 안내 등 안전수칙을 꼭 따릅니다.

## 사고 발생 때는

- 가장 먼저 119로 연락하고 이때,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,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합니다.
  -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
- 머리를 다쳤을 때는
  - 몸을 고정해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.
  -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에서 피가 날 때에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합니다.
- 골절상을 당했을 때는
  -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.
  - 어린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
  -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,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합니다.

# 공연·행사장 관람 안전 행동요령

## 입·퇴장할 때는

- 공연·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을 하여야 합니다.
- 관람객은 진·출입 때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아 줄을 서서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·퇴장하여야 합니다.
- 관람객은 공연·행사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장과 퇴장을 하여 공연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.
- 공연·행사장에 관람객이 가지고 온 물건 등은 버리지 말고 가져가야 합니다.
- 공연·행사 주최자 및 시설물 운영자는 관람객에게 공연·행사 시작 전에 위급상황 발생 때 대처방법을 충분히 알려야 하며 관람객은 이를 숙지하여 위급상황 발생 때 협조하여야 합니다.

## 관람할 때는

- 공연·행사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공연·행사장 내에서 관람객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 되며,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공연·행사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.
- 공연·행사 시간에는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, 진동으로 하거나 휴대전화를 꺼야 합니다.
- 공연·행사장 내에서는 공연·행사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을 하여 공연·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공연·행사시간에는 옆에 있는 관람객이 관람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공연·행사장에서는 폭죽, 폭음탄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,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.
- 공연·행사장에서 관람객 행동요령을 잘 지켜 공연·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.

## 비상사태 발생 때는

- 행사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, ‘불이야’ 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.
-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.
-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니다.
- 실내행사장의 경우 갑자기 정전되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.
- 대피 시 119구급대원 등 안전·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질서를 유지합니다.